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문화유산 콘텐츠 공모전 작품소개서 (스토리텔링)

응모자명	이다혜
작품명	비밀 파수꾼
한 줄 이야기	오래 전부터 인간의 손톱을 먹고 남몰래 화성을 지켜오던 팔달산의 생쥐들에게 어느 날 닥친 문화재 소실의 위험.
소재	수원 화성 서장대
주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의도	수원 시민으로서 어릴 적부터 화성은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가 방화로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복원이 되어있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해왔던 문화재에 우리는 이렇게도 무관심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	
등장인물명 1	동
춘의 신임을 받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생쥐. 문화재를 순찰하는 일을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 아이를 치료해주며 좋아하고 문화재가 불탔을 때는 영영 우는 등 감성이 따뜻한 캐릭터.	
등장인물명 2	창연
호기심 많고 활발한 다섯 살 남자아이. '동'을 통해 문화재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등장인물명 3	춘
팔달산에서 거대한 규모의 생쥐 무리를 이끌고 있는 대장 생쥐. 손톱을 먹고 인간으로 변신해 순찰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는 엄격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캐릭터.	
등장인물명 4	한
동을 시기하며 곤란에 빠뜨리는 생쥐. 하지만 훗날 동이 대장자리에 올랐을 때는 동의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준다.	



줄거리

수원에 위치한 팔달산에는 오래전부터 생쥐 무리가 인간의 손톱을 먹고 사람으로 변신해 진짜 사람들 몰래 화성의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생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파수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의 가슴은 씁쓸하기만 하다. 어느 날 '동'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밖에 나갔다가 인간 아이에게 변신하는 모습을 들키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그 아이와 친해지며 아이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전해준다. 그러나 '동'을 시기하던 '한'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 '동'에게 파수 금지 처분을 당하게 만든다. 그런데 마침 '동'이 야간파수를 서야 했던 그날 밤,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에 방화 사건이 일어난다. 생쥐들은 모두 흩어지고 '동'은 가까스로 화재를 무마시키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하지만 그만 실수로 아이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만다. 결국 서장대는 전소되지만 복원작업을 거치며 더 많은 관심이 문화재에 쏠리게 되고 생쥐들 역시 분발하여 파수꾼의 역할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문화유산 목록

번호	문화유산명	소재지	내용
1	서장대	수원시 장안구	팔달산 정상에 있는 군사 지휘 본부로 이야기에서처럼 몇 년 전 방화사건이 일어난 뒤 현재는 복원된 상태입니다.

작 품 본 문

1. 팔달산... 조용하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견고한 성벽, 시민들의 편의 공간... 그 풍경 사이사이를 둘러보며 눈썹 위에 긴 흉터를 가진 열 살 즈음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동'이 걸어가고 있다. 팔달산의 정상에 도착한 '동'. 정상에 위치한 서장대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옹기종기 모여앉아 있다.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는 서장대 옆 너른 마당에 한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서있다. 두 부자에게 가까이 가는 '동'. 아버지는 낮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고 아이는 혼자 신나서 뛰어놀고 있다. 아이를 쳐다보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친 '동'. 그러나 이내 아이의 시선을 피하며 곧 반대쪽으로 사라져버린다.

2. 오프닝. 경쾌한 음악과 함께 타다닥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린다. 무언가가 수풀 속을 빠르게 뛰어가고 있다. 돌담 위로 갑자기 나타나는 작은 동물의 검은 실루엣. 곧 담장 아래로 뛰어내린다. 수풀 속을 빠르게 달려가는 누군가의 시점 샷. 수풀 사이로 작은 굴이 나타난다. 어두운 굴속으로 점점 더 깊이 내려간다. 저 멀리서 굴의 출구를 알리는 미세하게 환한 빛이 보인다. 곧이어 시야가 환하게 트이며 넓은 마당 굴이 나타난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생쥐들로 북적거리는 마당 굴. 벽면에는 수개의 다른 통로 굴이 뚫려있고 모두들 작은 먹을 것이나 특히 하얀 반달모양의 손톱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 굴을 통해 마당 굴로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생쥐들. 4열종대로 서서 입에 문 손톱들을 회수하면 다른 생쥐무리가 손톱을 종류별로 분류해 각각 다른 방으로 손톱을 나른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 이제 막 굴에서 나온 시점 샷의 주인공 '동'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흉터 있는 눈썹을 으쓱인다. 바쁜 생쥐들 사이를 뚫고 한 작은 통로 굴을 향해 걸어가는 '동'.

3. 통로 굴 깊숙이 들어가는 '동'.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더더욱 어두워져간다. 마침내 통로 끝에 방이 등장한다. 사람들이 쓰다 버린 초들로 은근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방... 그 가운데에 폭신하게 지푸라기를 쌓아놓고 기대어있던 대장 생쥐 '춘'의 모습이 보인다. '동'이 방으로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춘'. 어쩐지 얼굴에 시름이 가득한 표정이다. '동'은 조심스럽게 오늘 순찰 활동에 대해 '춘'에게 보고를 한다. '춘'은 엄숙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다가 보고가 끝나자 껄껄 웃으며 아주 대견스러운 듯이 '동'을 격려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 '춘'을 보며, '동'은 '춘'의 마음이 불편한 연유를 묻는다. 마지못해 '춘'은 마음속에 짐이 되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4. 멀지 않은 옛날, 아직 쥐들이 팔달산지에 거처를 정하지도 않았을 무렵, 그들의 먼 조상 쥐인 '서'는 세상 이곳저곳을 방랑하다가 우연히 팔달산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새벽이 되도록 군사훈련을 하는 병사들과 높이 서장대에서 그 모습을 지휘하고 있는 정조 대왕의 모습 등에 반해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 '서'. 그 와중에 '서'는 한 용맹하지만 순박한 병사가 나누어주는 먹이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겨우겨우 삶을 연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그와 친구가 된다. 화성 성곽과 이곳을 지키는 자신들에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병사를 보며 여기 화성이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서'.



병사는 때때로 자신이 깎은 손톱들을 던져주며 ‘이거 먹고 사람이나 되어서 나랑 함께 이곳을 지키자’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 손톱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서’는 어느 날 그가 의문스럽게 사라진 후에 그의 손톱을 먹고 진짜 사람이 되어 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그 곳을 지켜왔다.

5.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손톱을 빌려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춘’은 이야기를 멈추고 뒤를 돌아선다. ‘동’은 ‘춘’의 뒷모습을 보다가 방을 나선다. 배분받은 손톱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 오히려 다른 인간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순찰 임무를 소홀히 하는 다른 생쥐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동’. 어쩐지 마음이 찢찢해진 ‘동’은 굴을 빠져나온다.

6. 마당 굴 밖으로 나온 ‘동’. 봄비던 쥐들도 많이 수그러들고 몇몇 쥐들만이 지나다니고 있다. ‘동’은 자신의 방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동’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시선과 속닥거림이 들려온다. ‘왜 저놈은 항상 손톱을 우리보다 더 많이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지?’, ‘대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걸 믿고 인간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지내고 있는 게 분명해!’ …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동’을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는 또 다른 생쥐 ‘한’. ‘동’은 애써 그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굴로 들어간다.

7. 방에 들어온 ‘동’은 한 구석에 폭신하게 쌓여진 지푸라기 위에 폭 쓰러진다. 방금 전의 ‘춘’의 어두운 표정과 지금까지 순찰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해 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른 생쥐들의 싸늘한 시선들이 온통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억울하고 울컥한 마음이 드는 ‘동’. ‘동’은 자신의 방에서 밖으로 나있는 비밀 굴을 통해 바깥세상으로 나간다. 어두운 밤, 하얀 달빛만 받으며 빛나고 있는 팔달산의 모습과 유려한 성곽의 모습…. ‘동’은 답답한 마음에 우두커니 달만 쳐다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8. 다음 날, 순찰조가 떠나고 한산해진 오후 무렵. ‘동’은 조심스럽게 마당 굴로 나와 주변을 살핀다. 몹시 망설이고 있는 표정의 ‘동’. 하지만 밀려드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일탈 충동을 이기지 못한 ‘동’은 단 하루만 인간의 모습으로 바깥세상을 그냥 다녀볼 것을 결심한다. 결국 어린 아이들의 손톱이 저장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동’. 그래도 죄책감 때문인지 가장 조그만 손톱조각만을 입에 물어 든다. 그 때, 뒤에서 무언가가 부딪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깜짝 놀란 ‘동’이 뒤를 돌아보니 아슬아슬하게 세워져있던 손톱더미들이 바닥에 쓰러져 흐트러져 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살피고는 방을 빠져나가는 ‘동’. 그러나 ‘동’이 떠난 방의 그늘에서 누군가의 발이 살며시 드러난다.

9. 같은 시간, 날씨 좋고 한적한 오후. 수풀 속으로 한 어린아이가 얼굴을 불쑥 들이 내민다. 얼굴을 보니 1썩에서 ‘동’과 눈이 마주쳤던 남자아이인데, 호기심 가득 찬 눈빛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 “이창연…” 어디선가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 수풀 속에서 나온 창연. 앞을 보니 굵은 어깨에 너저분한 옷을 입은 창연의 아빠가 긴 돌계단의 저 위를 걸어가고 있다. 서둘러 아빠를 쫓아 계단을 오르는 창연. 창연은 계단을 오르면서도 바닥 여기저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끊임없

이 찾고 있다.

10. 팔달산 꼭대기 서장대에 오른 창연과 창연의 아빠. 복장을 갖춰 입고 서장대를 지키고 서 있는 나른한 두 남성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신나서 넓은 서장대 앞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창연. 그러나 창연의 아빠는 작은 돌계단에 걸터앉아 무심히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홀로 뛰어다니기도 심심했는지 서장대에서 하산하는 길을 향해 뛰어 내려가는 창연. 그 때, 창연의 눈에 돌담 위에 꽃꽂이 앉아있는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온다. 창연이 다람쥐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손을 뻗는데... 다람쥐가 돌담 밑으로 휙 사라져버린다. 허둥지둥 다람쥐를 쫓아 수풀 속으로 따라 뛰어가는 창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다람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수풀 속에 창연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풀을 지나 더 나아가는 창연. 가다보니 커다랗고 너른 바위 하나가 나타난다. 자세히 보니 바위 위에 작은 동물이 꿈지락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심스럽게 그 작은 동물을 바라보는 창연... 천천히 바위를 향해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 작은 동물이 서서히 커져서는 열 살 쯤의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창연은 입이 떡 벌어져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른다. 창연이 지르는 비명 때문에 화들짝 놀란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본다. 눈썹 위의 기다란 흉터를 보니 필시 손톱을 훔쳐 나온 '동'의 모습이 틀림없다. 당황한 '동'이 멧쩍게 창연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창연이 도망가려 하다가 발을 헛디뎠다. 자리에서 파당 넘어지고 만다. 창연의 무릎에 작은 상처가 생겨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눈물이 그렇그렇하지만 불이 터질 것 같이 입술을 꼭 다물고는 경계하는 눈으로 '동'을 쳐다보는 창연. 그러나 창연이 쳐다보던 말던 '동'은 창연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몸을 일으켜서 도망가려는 창연, 하지만 팔이 부들부들 떨려서 자리에서 꿈쩍달짝 할 수가 없다. 마침내 '동'은 창연의 발치에 서고, 창연을 향해 손을 들어올린다.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창연. 그러나 '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바위로 데려가 앉히고는 주머니에서 깨끗하고 하얀 천을 꺼내서 다리를 싸매어 준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동'을 바라보는 창연. 그러나 창연은 '동'이 천을 꼭 묶어주자마자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수풀 밖으로 휙 도망쳐버린다. 창연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동'. 창연의 다리를 싸매주었던 두 손을 들어 올려 쥐었다 폼다를 해보며 유심히 바라본다. 푸석-하고 다시 생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동'. 여전이 두 앞발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미소를 짓고는 수풀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잠시 후, 수풀 속에서 '한'이 나타나 '동'이 떠난 자리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11. 며칠 뒤, 다시 당번 날이 되어 순찰을 나가는 '동'. 며칠 동안 맘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동'은 자신의 손에 달린 큰 책임과 자부심을 생각하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먹는다. 오늘은 성인 남자의 손톱을 먹고 순찰을 나서는 '동'. 40대 중년남성의 모습으로 산과 성곽 여기저기를 유유히 다니며 순찰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창연과 그의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 '동'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창연을 지켜본다. 무릎에 작은 흉터만 남아있을 뿐 여느 때와 같이 호기심 많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창연을 보며 한숨을 돌리는 '동'. 그러다가 무심결에 창연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여서 반대편으로 속 사라져버린다.

12. '동'은 한참 순찰을 돌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려 창연과 처음 만났던 수풀 속 바위로 향한다. 땀을 닦으며 바위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서장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누군가



‘동’의 팔뚝을 툭툭 건드린다. ‘동’이 뒤를 돌아보자 얼굴이 발그레한 창연이 두 손을 등 뒤로 감추고는 ‘동’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당황한 ‘동’이 물끄러미 창연을 쳐다보고만 있는데 창연이 숨을 크게 들이 쉬고는 등 뒤에 감췄던 손을 쪽 내뺀다. 손에는 ‘동’이 창연의 다리를 묶어줬던 하얀 천이 깨끗하게 빨려서 고이 접혀져있다. “고맙습니다.”하며 꾸벅 인사를 하는 창연. ‘동’은 창연을 놀랍게 쳐다보며 그게 어떻게 자기인 줄 알았을까하고 신기해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동’의 한쪽 눈썹 위의 기다란 흉터가 꿈틀 움직인다. “아빠랑 왔니?” ‘동’이 묻자 “네…”하고 작게 대답하는 창연. 멍쩍게 서있던 창연이 뒤를 돌아 수풀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동’이 창연을 붙잡는다. “너 저게 뭐지 아니?” 나무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저장대를 가리키는 ‘동’. 그러나 고개를 젓는 창연. “그럼 저게 뭐지 혹시 궁금하니?” 다시 ‘동’이 묻자 한참 동안 ‘동’을 쳐다보다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이는 창연. ‘동’은 웃으며 창연의 손을 꼭 잡는다. “자, 들어 봐. 내가 재밌는 걸 알려줄게.” 그리고 ‘동’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3. 저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말이야, 수많은 왕들 중에서 정조라는 왕이 있었다. 어릴 때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게 된 정조는 커서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무덤을 아주 좋은 땅으로 옮기면서 그 주변에 새롭게 도시를 세우고 도시를 지킬 성곽을 지어 이곳 화성을 만들었지. 팔달산 꼭대기의 저 건물은 저장대라고 하는 것인데, 장수가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지휘본부 같은 곳이란단. 정조 임금님이 행차하여 직접 군사훈련을 지휘한 곳이기도 했다 더구나. 이렇게 흰히 트인 곳에서 저 밑을 바라보며 군사훈련을 지휘했다니…정조 임금님은 매우 흐뭇하셨을 것 같지 않니? 물론 지금은 더 이상 군사훈련을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는 네 또래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저 넓은 수원시내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도 있으니… 그래, 네가 생각해도 굉장히 멋있을 거야. 하지만 저걸 봐. 이렇게 멋있고 소중한 우리들 모두의 공간인데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가벼운 생각으로 문화재를 마구 다루고 심지어는 훼손을 하기도 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단다. 이곳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만들어진 곳이었었는데 고맙다고는 못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괜찮을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점점 약해져가는 이 친구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단다. 우리 꼬마 친구도 여길 함께 지켜주기로 하는 건 어때. 나랑 약속할 수 있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창연. ‘동’은 창연과 마주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도장을 꼭 찍는다. 그 때, 멀리서 창연의 아빠가 창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는 창연. 창연은 ‘동’에게 재빨리 인사를 하고는 아빠에게로 뛰어간다. 저 멀리서 ‘동’을 바라보며 싸늘한 표정을 짓는 창연의 아빠. ‘동’은 창연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어쩐지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

14. 그날 밤, 야간 순찰을 서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위해 잠시 굴로 돌아온 ‘동’. 그런데 어쩐지 굴속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신을 쳐다보며 눈길을 피하는 다른 생쥐들… ‘동’은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며 순찰보고를 위해 ‘춘’의 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동’의 앞을 가로막는 다른 생쥐들. 그들은 ‘춘’이 따로 너를 부른단다며 ‘동’을 포위하고는 어둡고 깊은 굴을 향해 들어간다.

15. 아무것도 없는 검검한 굴속. 작은 햇불을 밝힌 몇몇 쥐들에 의해서 실루엣만이 구분 될 정도이다. 그 가운데 ‘동’이 거칠게 놓여진다.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동’… 그 때 멀리 어둠 속에



서 '춘'이 모습을 드러낸다. '동'은 허탈한 웃음을 짓지만 '춘'의 얼굴은 싸늘하기만 하다. 인간이 되는 모습을 인간에게 들켰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 '춘'. 순간 당황한 '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춘'은 인간 아이에게 정체를 들켰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더욱 위협적인 질문을 가한다. '동'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혼란스러워 '춘'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도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 때 목격자가 있다는 '춘'의 말과 함께 어둠 속에서 '한'이 모습을 드러낸다. '동'이 아이의 손톱을 훔친 데다가 인간 아이에게 정체를 들키고 그를 위협하기까지 했다면 증언하는 '한'. 뒤통수를 맞은 듯이 그를 쳐다보기만 하는 '동'. '춘'은 어두운 표정으로 방 한구석에 작은 호롱불을 내려놓고는 '동'에게 순찰임무정지 명령을 내린다. 게다가 처벌로 일주일간 독방 신세를 지게 된 '동'. '동'은 망연자실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걸려 잡기는 독방의 문. '동'은 몸을 움츠리고는 숨죽여 울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 잠깐 잠이 든 '동'의 귓등으로 미세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눈을 번쩍 뜨는 '동'. 쿵쿵 냄새를 맡으며 바람을 찾아 가다보니 아까 '춘'이 내려놓았던 호롱불 앞에 서게 된 '동'. 호롱불을 들어 뒤를 비춰보니 벽에 얇게 덮여 있는 천 조각 뒤로 바람소리가 솔솔 들려온다. '동'은 일부러 그곳에 호롱불을 두었던 '춘'의 행동을 떠올리며 마음이 울컥한다. '동'은 호롱불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 조각 뒤로 작게 나있는 굴을 통해 바깥을 향해 나간다.

16. 끙끙거리며 지상에 도착한 '동'. 달빛에 빛나고 있는 서장대의 모습이 다른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인다. 황홀한 표정으로 서장대를 보며 서있는 '동'. 그런데 그 때 저 멀리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틀비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아주 늦은 시각인데 누군가 의심의 마음이 드는 '동'. 점점 가까워질수록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동'이 조금씩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는 창연의 아빠였고, 술에 만취해서 허공에 대고 원망의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한껏 경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가 그래도 창연의 아빠이니 조금 마음을 놓는 '동'. 그렇지만 창연도 없고 그의 상태도 좋지 않은 것을 보며 조금씩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밖에 나왔다는 것이 들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기만 한다. 그 때 창연의 아빠가 돌담에 기대 허우적허우적 담배를 꺼내서는 아슬아슬하게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 순간 혁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앉은 자리에서 암전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그를 보며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동'. '동'은 애써 시선을 돌리며 창연의 아빠에게 등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그 때 창연의 아빠가 영차 하고 일어나 서장대를 향해 비틀비틀 붉은 담뱃재를 날리며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은 그를 보지 못하고 '나는 아무 것도 안 보인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하는 주문을 외우며 그를 등지고 계속 걷기만 한다.

창연의 아빠가 어기적거리며 서장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여전히 주문을 외우며 걸어가고 있는 '동'.

서장대를 향해 한발자국씩 천천히 들어가는 창연의 아빠.

'동'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중얼거리다가 '안 보이긴 어떻게 안보여!'하는 생각을 하고는,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 때, '동'의 등 뒤로부터 작고 붉은 담뱃재의 불씨가 날려 온다. 주춤 하는 '동'의 표정과 동시에 갑자기 수풀 속에서 팡 하고 날아오르는 불나방 떼... 순간 '동'은 좋지 않은 예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료들이 살고 있는 굴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한다. 잠시 후, 뒤에서 확 하는 열기와 함께 넘실대는 불길의 그림자가 '동'의 앞을 너울거린다. 뒤를 획 돌아보는 '동'. 보니 저장대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고, 멀리 창연의 아버지는 정신이 확 들었지만 여전히 몸을 못 가누는 상태로 불타오르는 저장대로부터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동'은 얼굴을 한껏 일그러뜨리며 울 것 같은 표정을 짓지만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굴을 향해 힘껏 뛰기 시작한다.

17. 여기저기에 굽히고 넘어지며 '동'은 마침내 굴에 다다른다. 아니나 다를까 마당 굴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있다. 혼비백산으로 바깥으로 피신하는 생쥐들. '동'은 사람으로 변신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보기 위해 손톱 방을 향해 달려간다. 성인 남성의 손톱이 있는 방을 박차고 들어간 '동'. 하지만 '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만다. 차곡차곡 분류되어 정리 돼 있던 손톱들이 모두 난장판으로 섞여있거나 부서져있고 다른 생쥐들이 도망가면서 한 가슴 가득 손톱들을 들고 가는 바람에 이미 손톱들의 절반은 사라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동'은 망연자실하다가 결국 가까이 있는 손톱 하나를 들고 무작정 바깥으로 뛰기 시작한다.

18. 바깥으로 나온 '동'. 손톱을 꿀꺽 삼키고는 불이 난 저장대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한다. 서서히 인간이 되는 '동'. 그런데 화재 현장에 도착한 '동'은 어이없게도 여덟 살짜리 꼬마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눈앞에 튀는 불뿔을 피하며 다시 한 번 좌절하는 '동'. 게다가 주변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소화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동'은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흙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옷에 퍼 담아 불길을 향해 던져보지만 불은 점점 더 타오르기만 할 뿐 멈출 생각은 하지 않는다.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엉엉 울며 계속해서 흙을 뿌려대는 '동'. 그렇지만 결국 유독가스와 자기 체력에 휘둘린 '동'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 서서히 다시 인간에서 생쥐의 모습으로 변한 '동'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신을 잃는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f.o.

19. 다음 날, 시내의 전광판이나 진열된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있는 수원 화성의 저장대가 방화로 인해 모두 소실됐습니다.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46살 이 모 씨가 피우던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야간순찰도 이뤄지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웅성이며 뉴스 전광판 앞을 지나가거나 멈춰서 뉴스를 보는 안타까워하는 시민들. f.o.

20. 그리고 5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의 무리가 선생님의 인솔 하에 재잘거리며 팔달산을 올라가고 있다. 다른 시민들 역시 즐거운 표정으로 여기저기 웅기종기 모여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수풀 속에서 아이들을 몰래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시끄럽게 떠들던 남자아이 중 하나가 시선을 느끼고 수풀을 쳐다보자 재빨리 사라지는 누군가의 시선.

21. 정상에 도착한 초등학교 아이들. 이미 멋지게 복원된 저장대가 햇빛 속에서 위엄을 내뿜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저장대가 어떤 곳인지 질문을 한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모르겠



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 한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수박 먹으면서 닌텐도 하는 데요!!”라고 말하자 모두들 까르르 웃는다. 다시 되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뒤 쪽에서 손을 살짝 드는 한 아이.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이를 지목한다. “여기 서장대는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장군이 지휘하던 곳입니다. 특히 정조 대왕님이 오실 때마다 직접 군사훈련을 지도하셨던…이요…”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맞아요. 여기 서장대는 수많은 군사들이 훈련하는 것을 지휘하는 곳이에요. 진짜 정조 대왕이 오셔서 직접 군사 훈련을 지휘하기도 하셨답니다. 잘 했어요, 창연이. 이따 아이스크림 상!” 다른 친구들, 박수를 치면서 부럽다는 듯이 와와 소리를 지른다. 창연은 부끄러운 듯이 뒷머리를 긁적인다. 그 때, 예쁘게 원피스를 입고 구두까지 신은 한 여학생이 갑자기 비명소리를 내지른다. “썩!! 쥐다!!!!!!” 여학생의 말을 듣자마자 학생들이 온통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기 시작한다. 장난 끼 많은 남자아이들은 쥐를 찾으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그 때 한 쪽 구석으로 정말 작은 쥐 한 마리가 쟁쟁하게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다시 한 번 소리를 썩썩 질러대는 여학생들. 남학생 몇몇이 쥐를 따라 뛰고, 선생님은 남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뻑뻑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난리법석인 도중에 쥐의 뒷모습을 보는 창연. “어?”하는 얼굴로 수풀 속으로 휙 사라지는 쥐를 보고는 씩 웃음을 짓는다.

22. 같은 시간, 수풀 속을 쟁쟁하게 헤치고 들어가는 작은 생쥐가 보인다. 한 작은 땅굴을 향해 돌진하는 생쥐.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생쥐를 쫓아가보면… 거기엔 깨끗하게 단장된 마당 굴이 있고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쥐들이 음식이나 손톱들을 날라 옮기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감동 어린 눈빛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아참’하고 한 작은 굴로 다다다 뛰어가는 생쥐.

23. 대장 생쥐의 방으로 들어간 작은 생쥐 ‘조’. 오늘은 ‘조’가 처음으로 순찰을 나가는 날이다. ‘조’를 격려해주는, 이제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동’. 그 때 ‘조’를 안내해주기 위해 다른 굴에서 ‘한’이 어색하게 들어온다. 작은 생쥐를 통로로 안내하는 ‘한’. ‘한’과 ‘동’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지만 친밀한 미소를 짓는다. ‘한’과 ‘조’가 방을 나가자, ‘동’은 작은 호롱불을 켜서 방 한 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24. 맑은 날씨, 서장대는 따사로운 햇볕을 받고 있고 무리를 이루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 조선시대의 복장을 하고 서장대를 지키고 서 있는 두 아저씨, 그리고 말끔하게 설치된 소화기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때 초등학생 인간의 모습을 한 ‘조’가 조선시대 복장을 한 두 아저씨에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조’의 인사를 웃으며 받아주는 두 사람. ‘조’는 밝게 웃으며 서장대의 너른 앞마당을 즐겁게 가로질러 뛰어간다.

끝.